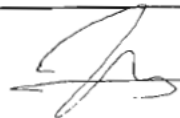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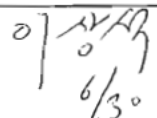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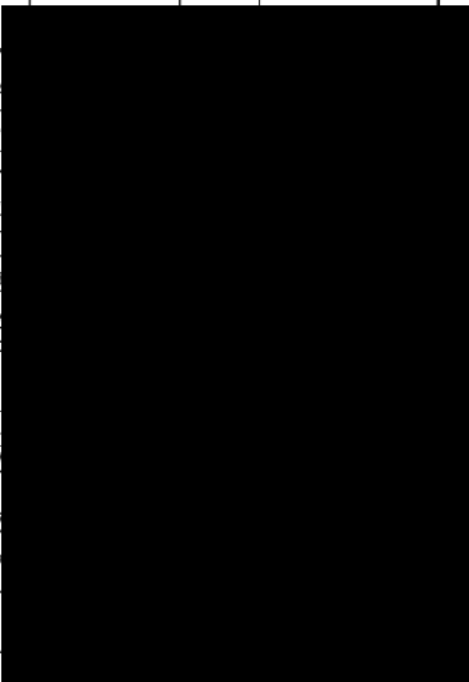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 팀NO : 2019- 028 1. 국가팀명 : 몽골 4팀 (팀) 공항 : 울란바토르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몽골리아 (칭길레) 정카스칸공항 3. 사역기간 : 2019년 8월 1 일(목) ~ 8월 7일 (수) / (6)박(7)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NC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주소		E-Mail
1	팀장	한집	최규태	2		95-124			
2	총무	은원	임은혜	1		2005-01			
3	서기	서원	최종관	1		91-24			
4	회계	은원	손선례	14		94-718			
5	의료	서원	김형비	12		90-256			
6	어린이	은원	김은숙	1		2376			
7	"	은원	신재준	12		84-1239			
8	"	서원	장응숙	13		88-324			
9	"	서집	지강비	1		99-109			
10	"	시장	최현우	1		2002-0286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총무,서기,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6/23	6/23	
							황 4안	정 재영	

소 감 문

몽골 4팀 최 규 태

2019년 여름 단기선교.

나에겐 또다른 시험의 과정이었다.

사업장 소유권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일주일 이상 사업장을 비울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선교일정에 동승할 수 있었다.

의료사역과 헌당예배, 성찬, 세례식을 겸한 연합사역이었기에 무엇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한 사역이었다.

대학생팀은 대학생팀대로, 교구 연합팀도 나름대로 제자리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잘 수행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혼구원과 주님만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어 가능하였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의 열정이 넘치는 외침에는 힘이 있었지만

날씨는 그렇게 우리들을 가만 두지 않았다.

38도를 넘는 날씨에서 축호전도에 노방전도에 힘이 다하고 탈진상태까지 갔다.

주일을 맞아 어제 전도했던 아기엄마들이 하나 둘씩 예배당에 도착하고 각지 교회에서 세례자들과 성도들이 도착하고 좁은 교회당은 그야말로 발디딜 틈조차 없이 꽉 찼다.

썸통더위에도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분도 불평없이 기쁨으로 찬양과 율동에 참여하고 헌당 예배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시작되었지만 성찬식과 세례예식이 잘 진행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의료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한 분들에게 준비한 식사를 제공하는 점심식사시간.

물론 어린 아이들부터 배식하고 어른들도 다함께 주님이 주신 한국식 카레라이스를 혼인 잔치에 오신 손님들처럼 다들 맛있게 드셨다.

6박7일의 몽골단기연합선교사역.

누구날 것도 없이 더위에 지칠만도 한데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린 서로 칭찬하며 위로하고 인천공항을 빠져 나왔다.

주님!

이번 단기선교에서 만날 만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몽골땅에 이루어 지듯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 척박하고 황량한 대평원 몽골의 초원 위에 단비를 내리듯이 저희 선교팀원들 마음도 촉촉이 적셔 주세요.

선교지에서의 감격과 기쁨가지고 한해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소 감 문

1교구 몽골 4팀 임 은 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몽골 충 현 교회 헌당식에 참석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몽골 오팔학교 벌떡 교장 선생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체험 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빛 하늘나라 교회의 옆집을 방문 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기는 붓대를 믿는다고 하였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성도는 너무 기뻐하면 축호 전도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몽골말이 서투른 우리에게 몽골 성도와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둔해서 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몽골 성도를 통해서도 역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몽골 충 현 교회 헌당식이 있는 날 일기 예보가 비가 온다고 하여 우리 팀10명은 합심하여 좋은 날씨를 주시라고 기도 하였습니다.

헌당식 날 우리의 염려와 달리 맑은 날씨 에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비가 오기 시작 했습니다. 잠깐 온 비가 순식간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홍수같이 물이 흘러 길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팀원이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19.8.7

소감문

최종간

먼저 은교인의 기도와 / 교구 식구들의 관심으로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몽골선교는 연교하신 권사님들의 기도와
열정^적으로 계획된 선교였습니다.

가는곳마다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팀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그곳에서 느낀것이지만 의도선교팀과 연합하여
선교에 임할때는 진료를 받기위해 멀리서 몽골하늘에
구름떼처럼 모여 순서를 기다리는 틈에 우리팀은 개개인
만뽀도 진하고 영생기도까지 시키고 찬양과 유희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 들입니다.

우리팀 권사님들은 80을 바라보는 은퇴권사님들이 5명 계십니다
천사처럼 유희을 하시는 모습, 따라하지 않은자가 어디있나요
저는 주반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짐서로 안내합니다.

주일에는 ~~월~~ 초원의빛교회에서 헌당예배와 세례식, 생찬식도
있습니다.

4명은 예배와 생찬식 준비로 참여하고

4명은 200명이 넘는 짐승준비로(카레) 분주했고

나머지 2명은 ^{이런이 사역으로} 준비해간 ~~청~~리창조. 근있는 색깔 선교,
복음판자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몽골 4팀 10명의 태원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로
연립하여 신을 이루는 한쌍의 콤비팀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12년전 1교구에서 처음갔을때 58 국립학교 교장
선생님을 전도할때 부장직이런 상황이 변하여
이번 세례식에 참여하고 세례받고 방학중인 교사들, 학생들
모아주시고 학교를 선교장소로 제공하는것을 보고 감동 받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것은 하나님하신것은 믿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음으로 사역에 임한
태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年 8月 8日

몽골 4팀 서기 최종근

몽골 선교를 바치고

몽골 4팀 손 선례 원사

팀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때 몽골 영혼을

사랑하는 사임들의 순종으로 나가는 선교사로

함께 주님께 기뻐하시는 사명을 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교회에 세워진 헌장예배를

위하여 초청. 주로 전도중에 예수님을 믿고

가끔 교회를 가는 한 형제를 초청하며 세례를 받는

과정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더욱 예배당의 선종기도 있지만

함께 즐기며 믿음의 귀기쁨이며 예배드리며 세례 받는

모습에 그의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과 평안함을 보며

몽골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볼수 있었습니다

그집 때문에 가서 부를때 짜증부리던 그사람이 저렇게 순한

양같은 모습으로 예배터 세례를 받고있으나 그는 정말로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세례받은 10명의 영혼을 위하여

더욱 기도 하며 2020년 그들의 새로워진 모습을 기다리는

나는 주님 오실때 까지 선교사입니다.

몽골 4팀 신묘 손꼽은

김형미

주님의 은혜가운데, 신묘의 열정은 주시니,
영광사경하는 마음을 주셔서, 3개월의
훈련동안, 팀의기도에 힘입어,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8학교에서, 초원의 빛교회에서,
광복하느니라 교회에서 이집사역과 형제들과
연락하며 어린이사역을 함께하며,

따로 또 같이 좀더 계획적인 조율이 필요함을
느꼈지만, 한 생명안에서 오케스트라는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느꼈다.

큰교회에서 이동때로, 작은교회로 딱히 신념말이
없었던 교우들과 한방에 지내면서

함께는 영적무장 낚이는 복음전파 !!

주 안에서 사랑은 또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다.
영애가 풍성한 주를 잘 보낸 선교기관이었다,
잘됐어야!
하나님께 감사!!!

소감

홍남천 장영숙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한낱 사람 예비하신 영혼
안녕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한 선교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며 준비
하였습니다. 연합회 사역이라 의뢰선교, 현장예배
시례식 모든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계는 모두 내려 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은 많은 영혼들 (특별히
위선부 출석하러 영혼 만나길 소망하며 선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관악, 자르갈 선교사를
(신학목자교회)
만나게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첫 인사가 다른 교회로 간절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별이 소식을 들은수 있어서 만났습니다
지금 천국에 다니며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별이가 한때는 옛날 별이는 죽었다고 얼마 치러
예수님 사랑 별이만 살아 있다고 하는 말이
가슴이 아파 합니다.
홍남천 장영숙

소감'문

몽글 4팀 김 은숙

건강상 미제출합니다

소감을

몽골4팀

신재균

58학교서 3명의 교장을 만났다.. 이번에 세례받은 교장

'벌떼'는 2014년 3월에 부임해 왔다. 지방대학 학장이
울강바르라 초중교 교장으로 온 것이다. 58학교는 대형 학교고
다분히 정치적 영향력 있는 학교로 실력자가 온다. 난 자연이
그에게 맡겨지고 한국어 교사의 자리는 그날 유지되고.

그의 허락 없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복음일마다
교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와 예배드리고, 때로는 교장실
에가 예수 믿어야 한다고 성경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난 사실상
한국어로 침수하고 이번 단기 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세현의 도움과 맨먼저 선교사로 58학교 권도를 가게 됐다.
우리 몽골 4팀은 회개 캠프 팀장 위주로 10명의 대원들이 진주하러
온자들에게 복음 권도하고 나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벌떼 교장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만 신령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느낌이
세례 받을까 같은 생각이 드니 감사다. 이번에 목사님도 오셨으니
세례 받자고 하니 알았다고 한다. 퇴근 시간을 맞추어 6시경에
교장실에 따라 들어가 세례 하자 하니 사관자 통역, 신박시
목사님 안 들어오라 한다. 그래도 좋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상관 없다 하니 커피를 다치고 문 잡고 우리
다섯명은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권혁준 목사님이
학습하시고 벌떼 주위에 서서 세례식이 진행 되는데
두렵기까지 한 정경함이 임하며 세례 받은 벌떼 머리위로
번개 빛 같은 날카로운 빛이 계속 내려 꽂힌다. 주여. 주여
문혜희 빛이 내려 오시네 그 감사와 그 감격 마치
지상 초안에 들어온 느낌 ! 주님 감사 해요
2019. 8. 4 일 신박시.

봉을 다녀 와서 ...

공향에 초원의빛교회 리우관다쉬. 참빛하늘나리교회 사랑자아
반가게 맞아주었다. 날씨는 무더운데도 탄동하기 좋은 날씨였다.
첫날사막은 58학교에서 의뢰선교 어린이사역 중. 성향리에 진행되고
있는중. 장장소식 58학교교장제서 세례식은 교장실에서 받
셨다... 이모든 성령님은혜로...

오우엔 근처니교회에서 대모사님들리. 어린이사역 같이 들
여 그날사막은 은혜롭게마르셨다

두째날 초원의빛교회. 관방하교. 준비를 두구 청서동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여로 앞세웠습니다. 비탄으로나기
물기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거주며. 전도하여 의뢰사역 있으니
오셔서 전도를 받아보라고 권하여 해주었다... 물기는사람들
을기라리며, 지나는데 창밖으로 예쁜 비탄강물이유난히
특었다. 소나무의 제사도 두번씩물었다. 하늘에서 자전물
잡해왔다고 그양들이가베었다. 좀 무성게는져왔다. 우리 다시
돌아다니리. 다시 그집앞에 강릉했다. 이번엔 다소곳하게
들어오라고하여 친절하게대해주었다. 모친이신장수들하여
어제 퇴원해 계시라고 어머니 자지 인사시키며, 모친이 고인
이라 친절하게말씀 해주었다. 주일날오셔서 예배드려하고
세례까지, 모친생일 축하준다고 2019. 8. 4. 일 같은 뜻깊게생각
하여. 선물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다. 영혼의 사랑을 거두기까지
성령님 함께하여주셔서 기쁘게역사하여주옵소서.
우리들은 다 했다고 봅니다. 초원의빛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부린사람들을위해
성령충만함으로 감사하며 지속적인 기도를해야 할것이다.
우리 주님으로살때까지 선교사리

2019. 8. 11

지 강매

선교 소감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으로 선교지 도착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성령이 불러 시키신 일”(행13:2)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일”(요17:4)을 우리 선교팀에게 허락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2019년도 단기선교 주제성구가“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28:19)라는말씀에 순종하여 몽골 초원의빛교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헌당과 세례 및 성찬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청년1부팀과 의료 선교팀의 연합 사역을 통하여 환자들의 육신의 질병치료가 영혼이 고침을 받아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진료를 줄서서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죄를 용서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할 때 영접기도까지 따라하며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침 경건회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저녁 사역 평가회는 오늘의 사역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마감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인도 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으며 주님의도구로 사용 하심을 감사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몽골4팀 최 현 구 장로